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매거진

월드뷰

WORLDVIEW

7

JULY · 2016

ISSN 2234-3865

COVER STORY

신이 없다
말하는 세대에
신을 묻다

라비 재카라이어스 Ravi Zacharias

기독교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SPECIAL COLUMN

기독교학문과 사회 참여
기독교학문과 정책 개발
기독교학문과 교회 봉사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노사관계개선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동관19층

Telephone 02-2183-2700

Fax 02-2183-2790

www.ins-lab.co.kr

m.ins-lab.co.kr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02회 정기연주회

SONG OF JOY & PEACE



기쁨과 평화의 노래

PROGRAM

J.S Bach : Cantata BWV107 | Cantata BWV45

이상근 : 사계절의 노래

T.C David : 3 Goethelieder

한국가곡



소프라노 이재은



알토 양송미



테너 최상호



베이스 정록기



알테무지크서울



지휘자 박치용

2016. 7. 19(화)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및 주관 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Seoul Motet Music Foundation

seoulmotetchoir 서울모테트합창단

후원 한국메세나협회 Korea Meccenas Association

기쁨병원

DAECHANG STEEL

Taeshin Inpack

공연문의 및 티켓에매 서울모테트합창단 02-579-7294/5 www.seoulmotet.com SAC*Ticket | 인터파크 티켓 | AUCTION 티켓 | YES24.COM 공연 | 나눔티켓

티켓 R석 10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 C석 1만원 • 초등학교이상 관람가능

학문을 제자리에 놓기



‘학문의 봉사’란 표현은 얼핏 보면 별로 특이하지 않지만 좀 더 따져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학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계화된 지식이며 전업 학자들의 고유 영역이다. 학문은 그 전통이 처음 시작되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최근까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뉴턴의 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칸트의 이성 비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등은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연구되고 발전되었다. 이해에 관심 없는 관조(disinterested contemplation) 혹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thaumazein=wonder)에서 발견하고 제시된 이론이나 ‘사실’(facts)일 뿐 어떤 특정한 관점이나 이념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실용적인 ‘가치’(values)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적 진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물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에게 모두 동일하고, 보수와 진보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학문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태도는 대학에 실용적인 학과목이 도입된 뒤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아는 것 그 자체를 위한 ‘순수 학문’ 혹은 ‘과학’(science)과 그것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응용 학문’ 혹은 ‘기술’(technology)은 엄격하게 구별되었고, 전자는 인문대나 자연대에서, 후자는 경영대나 공대에서 교육되고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봉사’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데 돕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학문’이 ‘봉사’한다는 말은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 특히 ‘순수 학문’은 ‘봉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인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떤 진리나 사실도
그 자체로 절대적일 수 없고
어떤 이론도 그 자체로 엄격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순수 학문과 응용 학문, 과학과 기술의 구별이 희미해져서 이제는 '과학기술'이란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수학, 이론물리학, 철학 등 순수 학문 분야는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이란 단순히 진리 자체를 위한 것이란 생각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진리 그 자체를 위한 진리 추구보다는 당장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술 상당수는 기초과학 연구가 없었더라면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 순수 학문분야의 성취에만 수여되었던 노벨상도 요즘은 점점 더 실용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 같다.

물론 학문의 이런 '타락'에 대해서 반항이 없지 않았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이런 변화를 '이성의 도구화'로 규정하고 학문의 규범적이고 비판적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개탄하는 사상가들이 있었고(호크하이머(Horkheimer), 아도르노(Adorno) 등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학파), 그들의 지적에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지금은 학문이 실용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고 특히 돈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

다. 돈이 없거나 돈별이가 되지 않으면 학문 연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물론 단순한 연구는 이미 다 이뤄져 버려서 이제는 큰 비용을 요구하는 분야만 남아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떤 진리나 사실도 그 자체로 절대적일 수 없고 어떤 이론도 그 자체로 엄격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다. 학문적 진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객관적이란 관점 그 자체에도 이미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아는 것이 곧 힘"(Scientia est potentia)이란 베이컨(F. Bacon)의 주장이나 "안다는 것은 예측하기 위함이다."(Savoir, c'est pour prévoir)라고 한 콩트(A. Comte)의 지적은 지식의 능력에 대해서 일종의 종교적 신뢰가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콘포드(F. M. Cornford)의 책 제목 『종교로부터 철학으로』(From Religion to Philosophy)가 그런 요소를 보여 주고 있다.

성경적 입장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진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진정한 행복에 도움이 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뉴턴의 발견이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이고, 칸트의 철학이 가치가 있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문의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은 그 자체로 성경적 관점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용적인 목적을 오늘날에 처럼 주로 경제적 이익에 두는 것도 결코 성경적이라 할 수 없다.

기독교학문은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가치

가 있다. 물론 '기독교학문'은 아직도 확고한 자리를 얻어 놓은 것은 아니다. 칸트가 철학'(Philosophie)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철학 함'(philosophieren)만 있을 뿐이라 한 것과 같이 '기독교학문'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학문하기'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기독교적으로 하는 학문이 할 수 있는 공헌들 가운데 하나는 '학문'이 이제까지 누려 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짓 권위를 폭로하고 지금 추구되는 잘못된 목적을 비판하는 것이다. 창조 교리가 자연에서 신적인 요소를 제거했고, 출애굽 사건이 국가가 누려 왔던 신적인 권위를 허문 것처럼 기독교적 학문 활동도 학문적 지식은 모든 가치와 이념을 초월하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제거하고 그 능력에 적절한 위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문이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학문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를 제시해 주는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심부름꾼임을 밝혀 주는 것도 필요하다. 즉 학문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다. 이런 봉사는 오직 참된 절대자를 알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학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지식의 우상과 돈의 우상을 같이 제거해야 학문의 참 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신성시했을 때는 자연과학이 발달될 수 없었다. 종교개혁 이후 자연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험을 감행할 수 있었고 그 덕으로 오늘과 같은 자연과학이 발달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격화되어 있는 학문을 비신격화하는 동시

에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학문이 건전하게 발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오늘 의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기독교 학자들이 할 수 있는 봉사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나 한다.

비판하려면 알아야 한다. 기독교 학자들은 자신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 것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문의 성격과 위치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학문을 하나의 '게임'으로 취급하라고 권한다. 학문이 '게임'인 이유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장구나 바둑처럼 사람들이 약속해서 만든 규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문을 하나의 '관념의 유희'(play with ideas)로 취급할 때 학자는 더 창조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 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 | | |
|-------------|-----|---|
| 대표주관 | 손봉호 |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
| 발행인 | 김승욱 | 중앙대 교수, 경제사회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
| 편집위원 | 강진구 |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
| | 김정호 |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
| |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
| | 박상은 | 안양생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
| | 송인규 |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
| | 신국원 |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
| | 우중학 |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
| | 이승규 |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
| | 조성돈 |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 신학박사 |
| | 조영길 |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
| | 조정민 |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
| 실무진 | 나동훈 | 독서진흥간행물 <Thanks Book> 발간인, 디자인집 아트디렉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졸업, 미술학 박사 |
| | 신효영 |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원장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중학 교수



이승규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나동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 | | |
|--------------|------|---|
| 이사회 | 이사장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
| | 부이사장 |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
| | 이사 |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웅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
| | 감사 |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
| 실행위원회 | 위원장 | 김태황 (명지대 교수) |
| | 부위원장 | 박동열 (서울대 교수) |
| | 위원 |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

Contents

JULY · 2016



COVER STORY

커버스토리

신이 없다 말하는 세대에 신을 묻다 | 라비 재커라이어스 08

COLUMN

메디컬칼럼 Cure & Care

잊혀진 너 | 최현일 36

사사문화OT

그리스도인에게 영화, 너란... | 유지은 40

SPECIAL

대표주간

학문을 제자리에 놓기 | 손봉호 02

기획칼럼

기독교학문과 사회 참여 | 김병연 18

기획칼럼

기독교학문과 정책 개발 | 장현일 23

기획칼럼

기독교학문과 교회 봉사 | 황영철 28

WORLD VIEW

2016년 7월호 | WORLDVIEW | 통권 193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라비 재커라이어스

WORLD VIEW



CONTENTS

| | |
|----------------------|----|
| 그땐 그랬지 | |
| 1993년인가? | 32 |
| 편집인추천 | |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 33 |
| BE+LIVE+R | |
| 월드뷰를 읽는 사람들이 읽은 존 낙스 | 44 |
| 루터의 도시를 가다 #5 | |
| 하이델베르크 추태화 | 46 |

CULTURE

| | |
|------------------|----|
|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 |
| 우리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 48 |
| 유머 | |
| 뜨거운 전화기 손봉호 | 64 |

BOOK REVIEW

| | |
|-----------------|----|
| 서평 | |
| 기억의 종말 조성돈 | 50 |
| 무신론자들의 망상 이상현 | 54 |
| 제인 오스틴 목상 이효민 | 56 |
| 일의 기술 신효영 | 58 |

NEWS

| | |
|-------------------|----|
| 사무국 소식 | 62 |
| 7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64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사진 신효영 | 교정 김선경 | 디자인·인쇄 디자인집 |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02-754-8004 | 팩스 0303-0272-4967 | 주소 서울
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한강르네상스빌 A동)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https://www.facebook.com/worldviewmagazine) |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 이메일 m.worldview.or.kr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
술동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
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
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
적인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의 병
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
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신이 없다 말하는 세대에 신을 묻다

라비 재커라이어스 Ravi Zacharias

라비재커라이어스 국제사역센터(RZIM)의 총재인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가 지난 5월 19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응답한다 0519” 집회에서 3천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했다. 청년들이 사전에 제출한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젊은이들과 진리를 향한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본 내용은 18일 기자 회견에서 진행된 것을 편집하여 소개한다.

RAVI,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라

Ravi Zacharias(이하 Ravi)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요?’ 등 말이죠. 질문은 때로는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무신론자에 의해 제기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하지 않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질문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에 응답해 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진행된 “응답한다 0519”의 목적입니다.

Ravi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힘들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정치를 보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인류가 찾고 있는 것은 결국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가치입니다.

한국은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지난 4년간 50회 이상 인천공항을 지나다녔지만 말이죠. 한국의 자살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힌두교를 필두로 하여 이슬람교, 불교 등의 많은 종교가 혼재되어 무수한 신이 존재하는 나라인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 계급인 브라만이기도 했지요. 유복한 기독교



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무신론자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열일곱 살이 되던 즈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없었고 이미 친한 친구들은 자살 시도에 성공했지요. 서툰 자살 시도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상에서 누군가 성경을 주었고 복음을 들려주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죠. 스무 살에 캐나다로 이주하여 트리니티국제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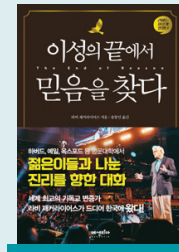
특히 저는 네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학문적 풍토, 정치, 비즈니스,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네 영역이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의 사역은 이 네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질문을 하지만 불신이 있죠. 저희 팀 RZIM(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y)은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느끼고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저희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옵니다.

명문 대학이라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옥스퍼드 같은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모이고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죄와 악 그리고 선에 대하여 물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는 왜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져있는지, 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만이 진리인지도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우리의 상식과 이성

RZIM(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y, 이하 RZIM)

RZIM은 전 세계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47명의 기독교 변증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기독교 철학, 세계 종교 등을 주제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강연을 해 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질문을 받죠. 성(Sex), 자살, 포르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대답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복음은 참 힘이 있습니다.



이성의 끝에서 믿음을 찾다

저자 라비 재커라이어스 / 역자 손동민 / 에센티아 / 원제 The End of Reason : A Response to the New Atheists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왜 학문과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왜 신이 없다고 주장한 많은 학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무신론은 그럴듯한 논리로 기독교를 공격한다.

이 책에서 재커라이어스 박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매우 냉철하고 문헌에 근거한 논리로 무신론자의 주장을 반박한다. 아울러 그는 참된 도덕과 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자체가 바로 진리임을 증명한다. 오로지 학문과 이성 매몰되어 그럴싸해 보이는 무신론자의 논리를 순식간에 무력화해 강력하고 분별 있는 해답을 제시한다.

을 사용하여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도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삶의 갈등입니다.

Q. 한국 무신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존경해도 기독교는 싫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avi 먼저 무신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사실 무신론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과연 진리가 존재하는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차이가 무엇인가?’입니다. 무신론의 역사를 보면, 무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사회적 만행은 어마어마합니다. 무신론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은 도덕적,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신론은 과학만을 맹신하게 되죠. 과학은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자는 ‘실험실 안’에서 실험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진리는 과학을 통해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

요한 가치는 과학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어떤가요? 모세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15가지로 축소시켰고, 이사야는 11가지로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미가는 3가지, 곧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나로 축소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두 개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모든 율법들이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한 반석 같은 첫 계명이 없다면 두 번째는 허공에 떠 있게 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즉, '하나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서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삭막해질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복음을 사랑으로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다고 할 때, 그 철학이 실천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철학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그 철학을 비판할 때에는 그 철학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논쟁해야 한다.” 복음은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행했던 선한 일들마저 역사 속에서 지워 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쩌면 더 삭막하고 슬픈 곳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대개 잘 되어 가는 일보다, 안 되는 일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균형 있게 기독교와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겠지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믿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G.K. 체스터튼-

한번은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방청객은 모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자 화를 냈습니다. 세시간 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중 철학을 연구한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무신론이란 거짓을 믿고 살아 온 저에게 이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기에 그들도 답답해하고 궁금해 합니다.

Q. 교수님께서 특히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종교와 신(神)들 가운데 기독교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말 하나요.

Ravi 인도에는 3억 3천 개나 되는 신들이 있고, 신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물어왔다면, 인도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이 많은 신들 중에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만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붓다는 힌두교 문화에서 자랐지만 힌두교의 많은 교리들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자신의 철학을 찾았기에 불교가 생긴 겁니다. 회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만약 종교가 배타적이지 않다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면, 나머지는 모두 가짜가 되죠.

그러므로 좋은 질문은 ‘참 진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기준을 최소한 네 가지 질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어디서 유래되었는지(origin), 둘째는 의미에 대하여(meaning), 셋째는 도덕(morality), 넷째는 운명(destiny)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합니다. 네 가지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할 때, 각각의 답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맞아떨어져야 진리입니다. 또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상호의미도 연계되어야 각 의미가 적실해집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직 기독교만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상호의미의 적실성까지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결혼은 매우 배타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

신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원을 볼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두었다!



무신론의 진짜 얼굴

저자 라비 재커라이어스 / 역자 권기대 / 에센티아 / 원제 Real Face Of Atheism

이 책은 '생각하는 자는 믿도록, 믿는 자는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올바른 변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받아들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집필하였다. 또한, 영적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내부에 떠오르는 의문을 직시하고 성실하게 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돕는다. 의문이 든다고 단순히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탓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 논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은 당신이 좀 더 독실하고 성실한 신앙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다.

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이겠지요. 체스터튼(G.K. Chesterton)은 하나님께 '왜 단 한 사람과 결혼하라 하셨는가?' 물었죠. 이처럼 진리는 그 의미 자체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진리가 진리다우려면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담아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행위로 그 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은혜와 용



서', 이 두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Q.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Ravi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마음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 있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큰 문제를 봐야 할 때 그 속에 작은 이슈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큰 그림과도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열쇠 구멍을 통해 세상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한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아이에게 의사가 갑자기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데 매우 아픕니다. “도대체 이 의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아이는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어린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엄마의 행동은 더 큰 위협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많은 시인들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많은 노래들과 시를 쓰게 되었지요. 우리가 어려서는 주사 맞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주사가 왜 필요했는지 않

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사한테 가자고 하는 부모를 신뢰하지요.

Q. 마지막으로 한국의 크리스천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Ravi 지금의 시대, 어느 곳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를 대표할 만한 리더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아버지와 양가 할아버지는 모두 목사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1900년에 죽으면서 '신은 죽었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에 신은 죽었기에 20세기에 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범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미쳐 갈 것이고, 둘째, 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죽기 전 13년간 미치광이로 살았고,

20세기에는 1,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900년보다 많은 수가 희생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파와 우파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잃어버린 것은 바로 '위와 아래'입니다. 만약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는 과거와 같이 미래를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부르심의 사랑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그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에 국한된 인생만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많은 한국의 젊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The

홍서사.

T. 333-5161 <http://www.hsbooks.com>

Philosophy

**“지금껏 우리는 구약 성서를 잘못 읽어왔다.”
유대인 성서학자가 구약 성서 해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구약 성서가 신의 계시를 기록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종종 자신들의 생각이 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성인은 구약 성서를 이성적인 저서로 여기길 거부하면서,
그리스의 저작들은 위대한 철학책으로 간주한다.

이스라엘과 그리스에 대한 이런 상반된 태도는 언제, 어떻게 발생했을까?
저자는 그 근원을 탐구해 구약 성서도 그리스 철학책과 같이 이성적 저서로
읽을 수 있음을 밝힌다. 그 후 새로운 해석들을 사용해 아벨·아브라함·야곱·
요셉·모세·예레미야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완전히 바꾸어놓는다.
이 책을 읽으면 구약 성서를 다시는 이전처럼 읽지 못할 것이다.

of

“우리 지성사의 커다란 두 줄기 사이의 연관을
깊고 명확하게 탐구했다. 엄청난 역작이다.”

스티븐 핑커_하버드 대학교 교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빈 서판》 저자

Hebrew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

요람 하조니 지음 | 김구원 옮김

Scripture

WORLDVIEW

SPECIAL

기독교인으로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문을 한다는 말이,
교훈적인 결론 도출을 지적 탐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식과 미를 그 자체로 추구하되, 그 욕구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미를 그 자체로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뵈옵는 쪽으로 전진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간접적으로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 소명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연구를 계속할 따름이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영적 의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현재의 세상을 순례의 장소가 아닌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영원한 도성으로 바꿀 비결을 추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미몽에서 깨어났습니다.

...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러진 학문 생활이
우리가 내세에서 온전하게 누릴 신적 실재와 아름다움에 나름대로 다가가는 미약한 방법 중 하나이고 하나님이 어떤 시
기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명으로 정해주셨음을 믿어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_(전시의 학문), 『영광의 무게』, C.S.루이스

기독교학문과 사회 참여

기독교학문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첫째,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둘째로 비기독교학문으로 참여한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는 기독교학문적 관점에서 사회 참여를 할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의 사회 참여와 관계가 있다. 기독교는 종교일 뿐 세속화된 사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피조세계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따라

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 만약 사회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사회에 참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사회에서 생활한다. 우리가 시민으로 참여할 때 가지게 되는 어떤 관점과 판단은 우리의 신앙과 관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으로서 투표하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 공약이 바람직한지, 혹은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사를 표시한다. 또한 소비와 기부, 투자도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또 어떤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고,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지에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관점은 말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한 기자가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소설만 쓰는가?” 그녀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가치규범이 자연스럽게 소설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답했다. 총신대 신국원 교수는 기독교세계관을 안경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안경에 따라 해석이 되며, 해석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했다. 즉 기독교와 사회참여는 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가? 기독교학문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세계관을 사회 참여와 뗄 수 없듯이, 기독교학문도 사회 참여와 뗄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이 체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경제학 논문에서 ‘미국에서 도로법을 위반한 외교관의 국적을 살펴보았더니,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온 의원일수록 도로법도 더 많이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행동은 본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유사한 예로, 또 다른 논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연구해 보니, 미국에 이민 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는 그들의 조상의 국적에 의해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북유럽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으나,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태

어난 자녀들은 타인을 덜 신뢰했다. 이와 같이 문화는 장기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한국 문화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별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질문에 기독교인의 32%, 천주교, 불교인의 33%, 무교인 34%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 배경이 필수인가’ 하는 질문에는 기독교인의 15%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55%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비기독교인들의 ‘그렇지 않다’ 15%와, 52%의 ‘그렇다’와 차이가 없는 수치였다. ‘떠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이민에 대한 질문에도 기독교인의 4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역시 비기독교인의 비중과 똑같았다. ‘일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기독교인의 12%만이 ‘아니다’, 비기독교인들은 1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적어도 세계관에 비춰 보았을 때 한국 기독교인의 특성은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몸은 교회에 나가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며, 안목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기독교세계관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 혹은 결핍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학문의 사회 참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도 가능하다. 기독교학문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많은 지적인 작업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영성향 기독교학문으로 사회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려 하면 부족하거나 치우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성을 더 배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기

기독교학문은
일반 학문을 대체하려 하기보다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인 방향성을
촉진 및 보완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독교학문의 사회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배양하여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사회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학문이 전문성을 가져야 할까? 기독교학문은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기 전에 다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학문은 다음의 3가지 S, 제시하고(Suggestive), 촉진하며(Stimulative), 보완하는(Supplementary)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일반 학문을 대체(Substitute)하려 하기보다는 일반 학문의 부족한 부분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의 논의를 촉진 및 보완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때에는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창조론과 진화론 같은 주제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분명한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 이럴 때 기독교학문은 일반 학문들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의 논의를 촉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의 관심이 경제성장에 쏠릴 때 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성장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 바탕에는 정신적인, 영적(Spiritual)인 권위를 가진 말씀의 지도

가 필요하다. 여기서 비기독교적인 학문으로서의 참여와는 다른 탁월성이 발견될 수 있다.

둘째,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과거, 손봉호 교수(세계관동역회 이사장)님과 사회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80년대에 이미 사회주의 몰락을 예상하셨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하부구조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다. 즉 하부구조인 경제구조가 바뀌면 상부구조가 바뀌며, 하부구조가 사회주의가 될 때 낙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 교수님은 사회주의 인간관이 잘못되어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이는 소련의 70년 사회주의 경험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대규모 인간 실험의 장에서 발견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주의의 건설자들이 그린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학자들은 70년 이상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반면에, 성경의 지혜로 타락한 인간 본성을 아는 학자들은 실제적인 연구 결과가 없이도 이를 아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기독교학문이 사회에 참여할 근거가 된다.

둘째로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는 눈이 있다. 기독교세계관의 틀은 '창조-타락-구속-하나님 나라'이다. 이 시간적인 파노라마를 높이로 환원하면 창조와 회복은 높고 타락은 낮다. 즉, 창조와 회복은 지향점을 보여 주고, 타락은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 준다. 기독교학문은 타락한 이슈를 분석하는 데도 탁월하지만, 동시에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회복되고 개선될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 준다.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 혹은 최선을 다해서

지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더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평화의 사회를 꿈꾸도록 우리를 추동하는 힘이 된다. 더불어 성경에서는 이런 사회를 공평성, 효율성, 자발성을 근거로 추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앎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알고, 이에 기초하여 학문을 세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하며, 이 비전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한계도 가르친다. 구원받지 못한 개인이 모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가 인간 공동체에 적용된다고 해서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학문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때로는 기독교인 중에도 타락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 이상적인 정책이 적용되면 실효성이 없거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템플 주교는 “기독교 사회 참여는 성경적 원리와 세상 현실 사이의 간격 좁히기”라고 말했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지향점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냉소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만 내세워 아무런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타락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창조 세계의 비전을 잃어버리어서도 안 된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1990년대에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영국 전 수상이던 토니 블레어에 의해 정책에 도입되었다. 북유럽



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 그런데 그 정신은 이미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다. 신명기 24장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그들에게 추수한 곡식을 가져다주기보다, 논밭의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직접 노동하여 남아 있는 모퉁이를 추수해서 먹고 살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적 복지이자 노동적·근로적 복지이다. 인간은 일해서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일할 힘이 있다면, 와서 일을 하라는 것이다.

북한 문제는 어떨까? 나는 북한 문제를 일부러 의식하면서 기독교학문 체계를 세워 연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하고 대북 정책을 제안할 때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세계관이 배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정신을 대북정책과 통일 문제에 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 즉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이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발견하여 이루고자 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

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평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두셨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셨다. 예수님은 화해와 평화의 왕이시다.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선평화-후통일론과 선통일-후평화론이다. 전자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 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통일을 한 후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두 주장 모두 타당성이 없지는 않으나, 나는 평화 없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평화통일이 아닌 북한의 체제붕괴를 외치는 실정이다. 물론 공산주의는 잘못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무력을 사용해서 없애자는 주장은 평화를 지향하는 말씀에 어긋나며,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에 대한 갈망이 적은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세 번째 초점은 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은 사유하는 학문이라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답을 내리는 학문이다. 나는 종종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의 자유가 없다고 말한다. 아무 제약 없이 이상적인 사회와 상황을 가정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이다' 하는 상상은 사회과학자로서는 잘못된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학문의 중요한 장점은 학문에 개입될 수 있는 편향을 제거하고, 객관적·공익적 관점에서 공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지진 이후 일본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매일 집으로 모 대학 학자들의 지진 연구에 관한 진단기가 왔다. 내용인즉, 동경에 직하지진이 3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70%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을 왜 매일 집으로 보내는지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이렇게 매일 위험성을 알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비를 많이 모을 수 있

다는 것이었다. 기독교학문의 원칙은 공정성과 공익이다. 혹시나 섞여 있을지 모르는 사익이나 이념, 개인적인 취향을 없애는 작업을 다른 학문 연구자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나 기독교학문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학문 체계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문의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일반 학문도 그러하겠지만 기독교학문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학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방향성 제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공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독교학문이 정책결정자, 사회운동가, 시민들에 여러 사회이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글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이다. (現)미국비교경제학회 집행이사, (前)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저서로는 『한국 사회와 기업의 경쟁력』(201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공저) 등 다수가 있다

※ 본 칼럼은 201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기초강연시 발표한 내용을 녹취, 정리하여 저자의 감수로 소개한다.

기독교학문과 정책 개발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신학과 신앙의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한국교계 위기를 초래한 지극히 개별화되고 사유화되어 버린 개교회주의 현상을 신학과 신앙의 공적 패러다임 회복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개인주의화로 공공성에 입각한 공적 영역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공교회성을

상실한 결과, 각 성도의 개인적 관심이 이익과 축복으로 함몰되어 가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개 교회주의와 성장 지향주의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 성숙분리, 번영복음에 입각한 기복주의 신앙 등에 물들어 강단에서 균형을 상실하고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공동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신학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독교학문은 어떻게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1. 기독교학문과 공공신학

일반적으로 공공신학의 기원은 1960년대 벨라(Robert N. Bellah)에 의해 시작된 '시민종교'(Civil Religion)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Stachhouse)는 신학이 '공적'(public)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삶의 구조와 정책으로 인도될 것이며 공공신학은 본성적으로 윤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민종교의 한 형식으로 마틴 마티(Martin Marty)는 1974년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eibuhr)의 신학을 연구한 논문에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소개했고, 몇 년 후에 '공적교회'(public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의 공적인 삶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냈다.

이러한 공공신학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교회의 공교회성과 공공성에 관한 인식 부족과 실천성 부재로 교회 또는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평가는 낮은 현실이다. 실제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에 관한 국회의원 인식조사(2015. 9. 21. 연동교회 발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크리스천 국회의원은 70명, 불교 21명, 천주교 29명, 기타 종교 2명, 종교 없음 25명, 무응답 1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가지 조사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독교가 한국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부분에서 '비교적 크게 기여하였다' 59.3%, '크게 기여하였다' 14.5%

로 총 73.8%가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부분에서는 70.8%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호감이 높은 종교는 천주교로 58%, 불교 56.8%, 기독교 43.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호감도는 삼대 종단 중 가장 낮다. 국회의원들도 천주교, 불교와는 친해지려 노력하지만, 근래 여러 문제점과 비리가 난무하는 기독교는 멀리하고 있다. 정치 속성상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성과 전문성(시78:72)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이제 한국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대국가와 대정부를 향한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공신학 즉 공공신앙의 공동체 리더십을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학문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개발(政策開發, policy development)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 기독교학문과 정책 개발 사례

1) 저출산 대응 영유아 복지를 위한 교회시설 활용 방안

저출산 문제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청년 취업, 보육 및 교육비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이며, 가장 큰 해결 고리는 청년 취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특정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시설, 즉 건물을 중심으로 시설이나 인적자원, 재정, 조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을 이용하여 영유아복지사업을 실천해 가며, 국가적 과제인 신뢰할 만

한 영유아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1) 종교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내 보육 거점으로 종교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삼아 부모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보육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육정책은 결국 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과 직장 문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례 서울 마포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종교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각 구 교회에서는 설립하는 건물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성하였다. 교회 소유의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덜하다. 실제로 해당 구에서는 리모델링과 각종 기자재 등 설치비만 부담하면 된다.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참여 방안(교회 사례) 광양대광교회, 부천새롭교회, 과천소망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업은 영유아와 엄마들을 위한 사역이다. 임신부학교(임신 여성), 아장아장학교(12개월~20개월 영아와 부모 참여수업), 엄마랑아기학교(20개월~36개월 영아와 부모 참여수업), 아가방(시간제 탁아돌봄사역), 어린이집(36개월~7세 아동), 지역아동센터(초등학교 1학년~6학년 방과후 학교), 무지개교실(주말 아동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센터(다문화임산부학교, 다문화 자녀돌봄) 등 여성 및 영유아, 아동들을 돌보는 사역을 다양하게 펼쳐 오고 있다.

신앙의 개인주의화로
공공성에 입각한 공적 영역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공교회성을 상실한 결과,
각 성도의 개인적 관심이 이익과 축복으로
함몰되어가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2) 문화예술통한 지역 공동체교회 운동 전개

한국사이버박물관연합회는 문화예술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갤러리처치, 뮤지엄처치 교회운동을 전개한다. 갤러리처치는 교회가 작가와 만남이 있는 작품 전시와 성경유물 특별전시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권을 부여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소통하여 지역 사회와 공간을 공유한다. 앞으로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소통하는 교회의 공교회성회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전국100개의 갤러리처치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실천한다.

3) 북한통일화합나무심기를 위한 한국교회 통일공공정책 KGPM 법인화

한반도를 푸르게 가꾸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과 모든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1인 2그루 심기에 3년 연속사업으로 참여하여 “통일화합나무123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서 이 사업이 한반도 우리 겨레의 생명자원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씨앗이 되어 화해와 평화의 기초를 세우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평화 통일을 향한 통일화합나무심기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한국교회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된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 그루 심기 범국민운동 국회심포지엄(2014년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과 두만강 평화통일화합나무심기 발대식(함경북도 나선시 원정, 조산리 등)을 통해 10만그루 식수운동(2015년 5월 25~28일)을 실시하였다.



특히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단법인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회(KGPM)는 대북지원단체 지정 승인(2015년 7월 30일)을 통일부로부터 받아 대국민, 대국가 공공정책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공공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산림복구를 위해 산림관련 법령의 개정과 ‘북한 산림복구 및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주일 국가고시(시험) 평일로 변경 정책 제안 수용 결정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공정책협 모임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주일 국가고시 일정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지금은 주5일제 정착으로 토요일에 학교 교실을 수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요일 시험을 평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일반인들에게는 행복 추구 차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5)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 조직 국가 기도회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 한국교회지도자연합 금식기도회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2014년 5월 12일 긴급 기자회견(종로 100주년 기념관)을 갖고 2014년 5월 21일 오전 1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지도자연합 금식기도회를 드렸다. 이날 기도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장 15절)는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바라는 금식기도회로 드러졌다. 이날 기도회에 문화체육

관광부 종무실장을 비롯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하여 경청하며 기도했다.

(2)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 교단장들은 지난 2014년 7월 26일 오전 9시 서울 종로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를 마친 후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농성천막을 방문하여 세월호 대책위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교단장들은 2014년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여야 당 대표와 청와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3. 맺는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국가 공공정책에 관해 교회와 학계 등 각자의 분리된 목소리만 있었다. 특히 기독교 학계는 각 영역별 학문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지만 그 연구와 정책적 제안을 실제로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사후 약방문 식으로 급조한 심포지엄과 세미나는 있지만, 이후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했다.

특히 공공정책의 특정 영역에 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정책 반영 확률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공공

정책에 관해 학제적 접근과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공공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변환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혁시켜 기독교학문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선한 영향력을 갖도록 커뮤니케이션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중요하다.

기독교학문이 사회와 교회에 공공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한국교회에 설명하고, (사)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장 활동가와 연대하며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공정책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문과 현장이 연결되는 공공신학의 실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정책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공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입안부터 집행 그리고 감사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한국기독교 정책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시대를 진단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국가 공공정책을 분석한 공공정책 설교자료를 한국교회에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글 | 장현일

행정학 박사로 현재 생명나무교회 목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자 (사)한국기독교정책연구소 소장, 국회국정감사NGO 모니터 단장이다.

기독교학문과 교회 봉사

I. 서론

기독교학문이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교회에 대해 생각한다. 기독교학문에 대해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기독교학문이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II. 교회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교회의 교사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보편 교회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즉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무리이고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것을 기다린다'(벨직 신앙고백 27항). 이 동일한 사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편적 즉 우주적 교회는 -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 선택받은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아래에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앞으로도 모여들어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신부, 몸, 총만이다'(25장 1절). 그렇다면 이 우주적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으며 그 구성원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통일성을 가진다.

각각의 신자가 몸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2절). '이 교회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의 마

지막까지 존재할 것이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신민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이것이 드러난다'(벨직 신앙고백 27항).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의 지역 교회에서 드러나는 우주적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이 신앙고백서들은 교회에 대한 논의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시작한다.

여기에 고려해야 할 사실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드러나는 정도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 보편의 교회는 때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때로 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보편 교회의 지체들(members)인 현실의 교회들은, 거기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따라, 성경의 명령들이 실행되는 정도에 따라, 공예배의 순결성의 정도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4절). 여기서 순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주적 교회의 속성 곧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이다. 이런 성격이 보이는 교회에서 더 많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더 순결한 것이고, 덜 드러나면 덜 순결한 것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비록 완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니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상태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은,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한다. 벨직 신앙고백은 참 교회의 표지라는 항목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파들이 자기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기 때문이다’(29항).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으므로,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음과 같은 표지들(marks)이 있다면 그것은 참 교회로 인식될 수 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순결하게 설파하는 일에 열중한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결하게 행한다; 그 교회는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교회 권징을 실천한다. 요컨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면서 말씀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견지해 나간다. 이런 표지들에 의해서 사람은 참 교회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 - 아무도 이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주적 교회가 지상의 교회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악한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 재림때까지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교회는 또 다른 성격, 곧 전투하는 교회의 성격을 가진다. 이 전투의 양상과 성격은 성경에 풍부하게 가르쳐졌으나 그 대표적인 가르침은 에베소서 6:10-18에 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 얻으려는 결과가 무엇인가? 지상의 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의 교회가 거룩성에서 더욱 떠나고, 보편성에서 더욱 떠나고, 일체성에서 더욱 떠나서, 마침내 교회가 이름만 교회이고 실제로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종교집단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III. 기독교학문이란?

우리는 기독교학문을 중생한 신자가 하는 전문적인

학문 활동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 도여베르트의 틀을 차용하자면, 기독교 학자라고 해서 별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학자가 아닌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한다. 이 영역에서는 학자라고 해서 우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

하지만 학자는 그런 일상생활의 어떤 한 가지 측면에 좀 더 집중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모든 학문은 삶의 특정 측면에 집중한다. 학자는 자신이 정한 측면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그런 이론적 활동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보다 그 분야에 대한 훨씬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학문 활동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 제공하시는 일반은혜 안에서 수행되므로, 신자도 거기에 참여하여 학문 활동과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인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활동 속에서 기독교 학자가 어떤 면에서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기독교 학자는 중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이 생겼고(요 3:1-7), 우주와 세상을 계시의 빛에 비추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신자인 학자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골 3:10).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사람이 이 세상의 관리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창 1:26),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돌리기 위해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다가(엡 1:20-23)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에 이른다는 사실은 불신자 학자에게는 뜻 모를 소리이지만(요 3:8), 기독교 학자에게는 그의 삶과 학문 활동의 원동력이요, 근본 원리가 된다. 이런 새로운 지식에 근거하여 기독교 학자는 자신의

학문 활동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 불신자는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학자는 불신 학자가 할 수 없는 기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학자의 학문 활동에서 드러나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학문의 기여가 교회를 통한 만물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기독교학문의 교회 봉사는 중요한 주제이다.

IV. 기독교학문의 교회 봉사

기독교학문은 전문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사용되는 학문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 분야가 교회 조직과 운영이다. 우주적 교회가 지상에 드러날 때에는 조직체의 형식을 띠게 된다. 교회 조직의 문제는 운영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회 조직의 독특성이 우주적 교회의 유기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교회 운영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는 유기체로 움직인다. 마치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교회의 각 지체도 머리가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지시 하에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엡 4:16; 고전 12:1-7). 이런 유기체성이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 조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구현되어야 하는가?

사람이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있어 왔다. 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여 사람을 교회의 머리처럼 만든 것이 로마 카톨릭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기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본 조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사실이 신학적 구호가 아니라 교회의 실제 행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런 일이 왜 잘 되지 않는가? 목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느니, 회중이 무책임하다는 상식적인 진단은 많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한국의

교회와 문화, 사회의 독특성과의 관계에서 학문적으로 살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그것을 실행해 나가려는 좀 더 전문적인 노력은 기독교 학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주적 교회는 모든 죄와 불법, 부도덕이 전혀 없는 교회이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 역시 모든 죄와 불법, 부도덕과 싸우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면 이는 그 교회의 본질적 속성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선언만으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죄로 얼룩지고 악과 불결한 것이 가득한 현 세상에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어떤 문제들은 옳고 그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는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다. 생명 공학으로 인한 유전자 조작의 문제, 의학의 발달로 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우선인가 환경 파괴를 막는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들과 같이,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분야들이 많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교역자가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목회자와 기독교 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거룩한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우주적 교회의 속성 중 하나가 보편성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동일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지역 교회의 사람들이라면 인종이나 국경이나 사회적 계급이나 성별에 의한 모든 경계가 그들 사이에서 허물어져야 한다.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그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보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지상적 드러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참된 의미의 교회인가 하

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특별히 다민족 국가가 되어 있는 한국 상황에서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는 우주적 교회의 보편성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려 있는 한국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에게도 큰일이다. 이런 문제에서 교회가 보편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제반 벽들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적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이것 역시 기독교 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사람들로 구성된 우주적 교회는 완전한 통일성을 이룬다.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통일성도 사람들의 종교적 노력에 의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의 속성이 지상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며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통일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지상의 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통일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참 신자들은 교회의 통일성에 역행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모든 일에 찬성하며 가담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적으로는 그들의 노력이 교회의 통일에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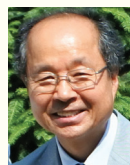
재림 전 현 역사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공간적, 언어적, 문화적 제약에 의해서 교회가 함께 있지 못하거나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혹은 서로 물리적인 교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동시대를 사는 한 사람의 신자가 유의미한 접촉을 가질 수 있는 신자의 숫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럴지라도 모든 시대의 교회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학자

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협력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교회의 통일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하게 연합되었다는 것이며, 영적으로 그러하다면 학문 활동에 있어서도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현실이 있어야 한다. 인간 이해에 있어서, 그 이해를 근거한 정책 결정과 우선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만족시킴으로 살롬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기독교 학자는 근본적인 의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한다.

V. 결론

기독교 학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봉사를 그런 다양한 기여들 중의 하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사실이 그가 지역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드러나므로, 교회에 대한 봉사는 그의 모든 활동의 뿌리이며 절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자를 불러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이런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에서 그의 학문적 소양과 능력을 활용하라는 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가 그 일을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다.



글 | 황영철

총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서리(SURREY)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윤실 협동 총무를 역임하고, 지금은 성의교회의 담임목사다. 저서로는 『다시, 겸손을 말하다』, 『성령과 윤리』, 『이 비밀이 크도다』, 『겸손』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비전』 등이 있다.



좌부터 주수길, 황호찬, 황영철, 존 스토티, 강영안, 김승욱, 양성만

1993년인가?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IVF 전국수련회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왔죠.

그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수가 주인인지 되물어 봐야 하며 주인이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했죠.

그리고 당시 몇몇 학자이자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모아 초청회를 했었지요.

이 사진은 춘천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_ 강영안(고신대 이사장)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존스토티 John Stott.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도, 기독교의 기본진리...

오늘은 존 스토티를 책으로 만나 볼까요?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4-19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학문세계

저자 | 조지 마스덴, 역자 | 조호연, MP, 정가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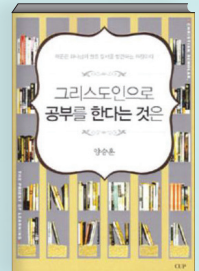
역사학자이자 노트르담(Notre Dame)대학에서 오랫동안 역사학을 가르쳤던 조지 마스덴이 1996년에 집필한 이 분야의 고전적인 책이다. 이 책의 목적은 기독교학문(Christian Scholarship)이 처한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스덴은 왜 오늘날의 학계에서 기독교적 관점이 환영받지 못하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학문 세계에서 통하는 경기 규칙을 소개한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과 신학적 사고가 학문 연구에 주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독교학문을 위한 학문 공동체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부록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독교학문 연구의 흐름을 덧붙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자 | 양승훈, CUP, 정가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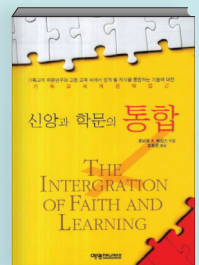
VIEW의 양승훈 교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KAIST 시절부터 30여 년 동안 그를 고뇌하게 만들었고 이 책의 내용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양 교수에 따르면 공부도 영적인 일이며 예배다.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를 둔 학문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며(단 12:3) 곤고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사 50:4)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학문을 신앙과 통합하는 노력을 포기할 때, 학문의 세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고 학문의 세속화는 삶의 세속화로 이어진다. 이 책은 신앙과 배움을 함께 추구하는 크리스천에게 비전과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

저자 | 로버트 A. 해리스, 역자 | 최용준, 대장간, 정가 12,000원 | 원제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뱅가드(Vanguard) 대학의 영문학자 로버트 해리스는 이 책에서 “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누구나 개인의 신념과 외부의 지식이 성공적으로 통합되기를 원한다. 신념은 삶에 확고한 근거와 의미를 주고 학문은 삶에 넓이와 정확성을 주기 때문이다. 두 영역의 성공적인 통합은 신념을 강화시키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키워 준다. 해리스는 통합이 크리스천을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이 책은 과학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문화에서 하나님의 총체적 진리에 도달하는 적절한 길을 제시해 준다.



고등 여주캠퍼스 신입생 모집!



유·초·중·고등 기독교 고전교육기관



SICA

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 위에 가르칩니다.
SICA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칩니다.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Trivium)으로 가르칩니다.
SICA는 샬롯메이슨 철학을 토대로 품성을 가르칩니다.
SICA는 전 과목을 역사로 통합하여 교육합니다.
SICA는 이중 언어로 교육합니다.
SICA는 고전어(라틴어)를 가르칩니다.
SICA는 말씀을 따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유·초·중등 과정 입학설명회

- 일시: 7월 1일(금) 오전 10시
8월 10일(수) 오후 6시
- 장소: SICA(서울 서초구 양재동 363)

SICA 고등 과정 입학설명회

- 일시: 7월 21일(목) 오전 10시
8월 11일(목) 오후 6시
- 장소: SICA(서울 서초구 양재동 363)

유·초·중등 과정

유치원-7학년 | 양재캠퍼스

고등 과정

8, 9학년 | 여주캠퍼스

입학상담 02.557.7710 | www.sicakorea.org

WORLDVIEW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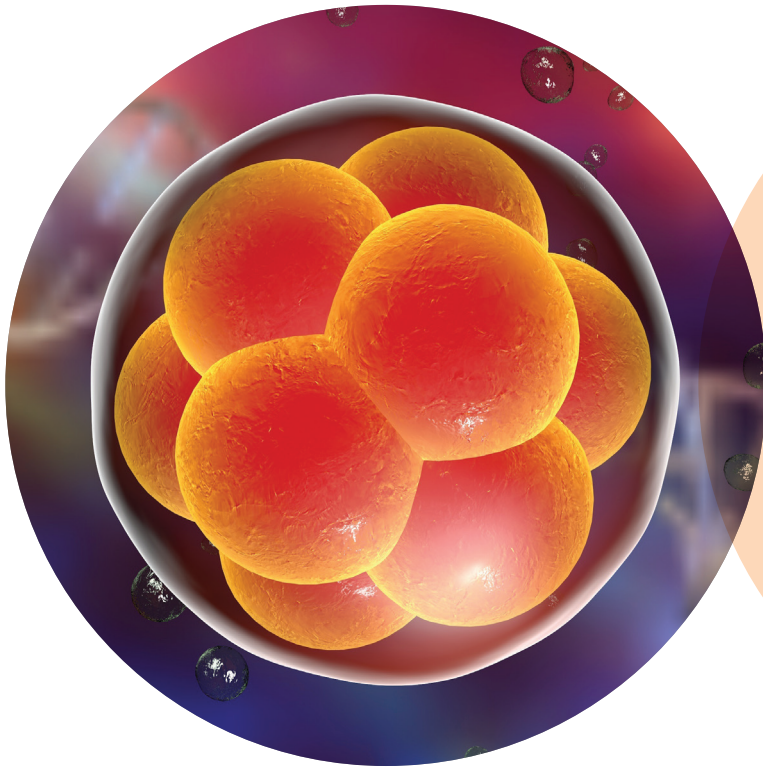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잊혀진 너

시사문화QT
그리스도인에게 영화, 너란 ...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누군가를 믿기로 '선택'할 때

잊혀진 너



수정된 한 개의 세포에서 출발한 우리 몸은 세포의 분열을 거치면서 약 100여 개 정도의 세포가 되었을 때 새로운 분화가 일어난다. 약 50여 개의 세포들은 앞으로 태반, 양수, 양막 등을 형성하는 세포들로, 또 다른 50여 개의 세포들은 우리 몸이 되는 '내세포군'이 되어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간다. 태반 등을 형성하는 세포들은 중심부에서 벗어나 주변부로 이동하여 기꺼이 돕는 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태반(Placenta)은 태아와 엄마를 이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태반을 뜻하는 ‘Placenta’라는 용어의 기원은 라틴어의 ‘cake’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태반의 모양이 마치 둥그런 생일 케이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유래한 듯하다. 직경은 약 22cm 정도이며 두께는 약 2.5cm 정도이다. 약 500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고, 태아와 약 60cm 정도의 탯줄(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며, 엄마로부터 공급받은 피가 들어가는 두 개의 제대동맥과 태아로부터 나오는 한 개의 제대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없듯이 태반 역시 임신 12주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신체기관은 12주 이전에 이미 형성된다는 것이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기관이 형성되는 동안, 아직 완전하지 못한 태반 역시 자신을 발달시키면서 태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태아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자란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태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나팔관에서 수정된 후, ‘상실배’라고 불리는 산딸기 모양과 비슷한 세포집단이 되고 나서, 자궁내막에 ‘착상’을 하면 드디어 엄마 자궁의 세포와 태아세포가 ‘Face to Face’ 대면하게 된다. 두 세포는 만나자마자 곧장 친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길을 비켜 주고 넓혀 주어 자궁 내에서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단계에서 최우선순위는 앞으로 자라갈 태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태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에 항상 위기가 있듯이 이 과정에도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몸은 원래부터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은 세포나 조직이 들어오면 면역반응에 의해 그것을 제거하게 되어 있다. 태아는 반은 엄마의 몸이지만, 반은 아빠의 몸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모에게는 태아의 50%가 다른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태아를 ‘이물질’로 인식하게 되고 면역체계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태아를 제거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게 된다.

그러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길도 존재하는 법. 우리 몸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우리 몸이 어리석지 않은 것은 우리를 지으신 이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태반이 생성되는 초기에 태반은 엄마 면역체계의 공격을 피하면서 어떤 물질(Neurokinin B- 함유 콜린인산분자)을 분비하여 면역체계를 자신들의 편으로 인식시킨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작지만 강력한 림프구를 생성하여 면역자극물질인 인터루킨으로 엄마의 면역체계가 흥분되지 않도록 그 길목을 차단한다.

자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모두 지나가면 태반은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 설 틈이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은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호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여기에서 호흡이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작업을 말한다). 임신 말기에 이르면 태반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분당 약 0.7리터(700ml)가 된다. 하루에 약 1000리터의 혈액이 태반으로 향한다. 이를 통해 모든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태아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대사산물을 걸러낸다. 그 외에도 태아를 보호하는 면역기능을 통해 외부로부터 보호하면서 엄마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한다. 이 항체는 신생아의 초기 면역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태반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는 엄마 대사과정과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있다. 태아는 임신 기간 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대사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은 엄마의 뇌에 있는 뇌하수체와의 협동 작업을 통해 태아 자신의 성장을 지켜 나간다. 이것은 태반의 성장 호르몬을 통하여 엄마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임으로서 시작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엄마의 혈액 내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간 당분을 태반으로 유도하여 태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태반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태아의 신체 분석에 의해 시시각각 조절된다.

이렇게 할 바를 다한 태반은 분만시 배출되어 대부분 의료 적출물로 버려지게 된다. 최근에는 분만시 태반에 남아 있는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제대혈의 세포로 치료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태반 추출물을 화학적으로 정제하여 영양 보조제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을 주고 가는 태반의 뒷모습이 아련하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분만 과정을 마치고 버려진 태반들을 바라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임신 초반에 태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먼저 살려야 하는 어려움을 이기고, 임신 기간 내내 활약했던 그 화려한 모습-면역계를 조정하고, 영양분을 정확하게 넣어 주고, 호르몬을 환상적으로 맞춰 주던-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쓸쓸히 남아 있는 너. 우리는 언제나 희생하고 감내한 영웅들을 쉽게 잊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은 너를 한 번 더 만져 주고, 바라보고, 감사하며 분만실을 나선다.



글 |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위원장을 지냈다.

왜 일반 도서를 읽어야 할까요?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신앙인을 위한
문화매거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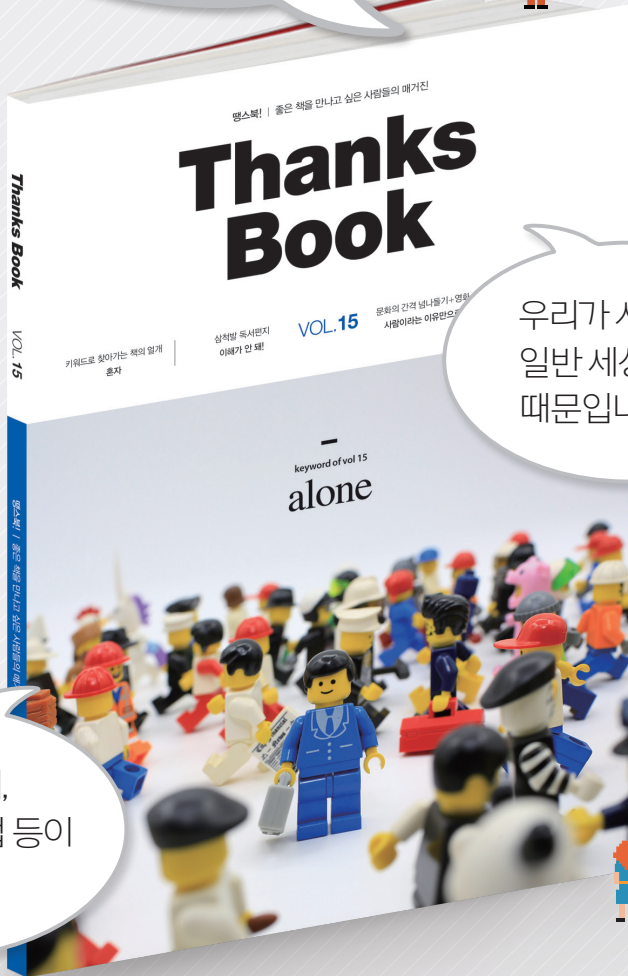
어떻게 일반 도서를 대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읽는 것입니다.

땡스북은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읽고 싶은
신앙인의 선택입니다.

독서토론 논제,
글쓰기, 독서법 등이
연재 중입니다.

우리가사는 곳이
일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독서토론, 글쓰기, 독서법, 키워드로 만나는 책의 열개, 미디어 비평, 다양한 독서 활동 소개

추천 최태연(백석대 교수), 정병오(전 좋은교사운동 대표), 김주련(성서유니온 출판국장)
이찬형(샘물중고등학교 교장), 이운연(re 편집장), 김정태(좋은교사, 전 편집장)

THANKS BOOK

땡스북
정기구독

1년 **36,000** 원 (택배비 포함, 연 6회 발행)

구독 상담 070-8233-5178 www.tgive.org



정기구독 QR코드

- 사)땡스기브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신자들이 중심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유일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 땡스북(ThanksBook)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발간하는 독서진흥간행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화, 너란...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문화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화는 기독교 신학이 체현되는 현장이다. 교회사적으로 문화라는 현장을 적대시하는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부터 문화와 신학을 굳이 구분 하지 않는 자유주의 입장까지, 모두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영화는 문화의 대표적인 매체이며, 산업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영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즐겨 봐도 될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봐야 할까? 필자는 강의 현장에서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많다.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영화가 좋을지 선택의 문제 보다는, 영화 한 편을 보는 태도나 깊이,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에 집중하여 풍성함을 나누는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와 영성』에서 로버트 존스톤은 ‘영화 비평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화를 볼 때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가 보는 영화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 5가지 입장을 소개한다. 이 입장은 리차드 니버의 5가지 모형과 통하는 면이 있다. 그

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볼 수 있는가’이지, ‘보아야 마땅한가?’가 이념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면 로버트 존스톤의 첫 번째 입장부터 살펴보겠다.

1. 회피하는 입장

윤리적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점으로 이 입장의 그리스도인은 영화의 예술적 측면보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신학은 주로 영화를 검열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보수적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영화를 악마의 도구라 했다. 옛 이야기 같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저속하거나 반기독교적인 내용의 영화는 절대 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보이콧을 벌여서 저항하는 일을 적극 지지한다. 과거 <다빈치 코드>(2006년)가 국내에 개봉할 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원에 상영금지 소송을 넣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과격 한 보이콧이 벌어지기도 했다.

2. 경계하는 입장

회피보다는 허용적이지만, 여전히 영화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보기는 보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우려하는 태도로 볼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살인자로 그려지거나, 목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영화를 본다면 관

객이 정말로 그렇다고 믿게 될 수도 있어 위협할 수도 있다. 영화는 언제든지 내가 가진 신학을 침범하여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3. 대화하는 입장

이 입장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듣는다.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냐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를 충분히 감상한 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이것은 균형 잡힌 비평자의 자세로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비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학과 영화의 대화를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4. 수용하는 입장

이 입장부터는 영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대화를 넘어 영화로부터 종교적 이해와 통찰을 배운다. 영화가 가진 의미의 이해를 넘어 영화에 몰입시 얻는 통찰력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깊이와 폭을 더한다. 예를 들어 종교적 주제와 상관없는 영화도 인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풍성한 통찰을 주는 영화들이 있다. 종교적인 거룩함, 아름다움과 통하는 영화들이 있다. 필자는 이런 영화를 '종교를 닮은 영화'라고 부른다.

5. 신적인 만남

"영화는 관객에게 초월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성례전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가령 하나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술작품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기도 한다. 영화라는 예술이 관객에게 바로 이런 경외감과 경이감을 일깨울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물론 모든 영화를 수용 혹은 신적인 만남의 경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경계해야 할 영화도 있고,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영화도 있다. 혹은 한 영화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피나 경계의 입장에만 머물러 영화 즐기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내 인생의 영화라는 말이 있듯이, 영화 한 편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의 구석구석 숨겨진 요소들이 나의 신념과 신앙을 해치고 공격하여 결국 무너뜨린다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나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강경한 태도로 귀를 닫고 영화가 이야기 하는 방향과는 상관 없이 자신의 신념만으로 영화를 처단하는 성급함이 있다면, 영화를 영화 자체로 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화하는 입장'이다.

한편 반대로 가리지 않고 영화를 즐기는 것에 죄책감을 갖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 대신 즐거움 속에서 의미를 찾아 신앙과의 접촉점을 풍성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혼자서 힘들다면 친구나 공동체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눌 것을 권한다. 먼저 아무 선입견 없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과 장면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고, 충분히 나눴다면, 이제는 영화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본다. 토론으로 영화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나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살펴보면서 영화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능력도 점차 길러질 것이다.

그리스도적 인물이 나타난 영화들

태생적으로 '대화하는 입장'이 요구되는 영화들이 있

다. 기독교나 성경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노아> 같은 영화나,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출발하는 영화들이 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리스도가 직접 나오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비유적 인물로서 예수를 표방하는 현대적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다. 그런 캐릭터를 ‘그리스도적 인물’이라고 칭해 보겠다.

그리스도적 인물이 나오는 영화로 <바베트의 만찬>(1996)을 꼽을 수 있다. <바베트의 만찬>은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 청교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이 마을에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자가 하녀로 오게 된다. 바베트는 충실하게 이 가정의 자매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얼마어마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다. 바베트는 프랑스로 떠날 것 같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돈을 전부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에 갇힌 이 가정에 새로운 음식으로 화해와 회복을 가져온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진귀하고 세속적인 프랑스 음식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지만, 그 맛과 바베트의 손길에 점점 마음이 녹아드는 장면은, 율법을 깨고 사랑의 새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적 희생을 떠올리게 된다. 바베트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적 인물인 셈이다.

2013년에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을 생각해 보자. 이 영화는 6살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신지체 장애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코믹하고 감동적으로 버무려 천만을 돌파한 영화이다. 가족영화로 분류되기도 하고,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어 누구나 공감할만한 대중 영화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보면 단순히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 억울함을 무릅쓰고 대신 죽음으로 딸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려는 아빠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주



요 구조이다. 이것은 분명히 ‘대속’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 것이다. 예승이라는 딸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예수’로 들리는 착각을 일으킨다. 실제로도 “예수?” 하고 되묻는 장면이 감독의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지나친 신과와 후반부 감정신의 늘어진 연출 등은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 말하기는 어렵다. 평범한 오락영화에 그쳐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감독의 숨은 의도가 극중에 녹아들어 대중적으로 어필한 영화로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7번방의 선물>이 감독의 명확한 의도로 성경적 세계관을 영화에 녹여낸 예라면, 직접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진 않았지만 종교적인 대화를 요청하는 영화들도 있다.

봉준호, 박찬욱, 김기덕, 이창동 감독들의 영화에 지속적으로 보이는 구원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 존슨톤은 이를 ‘기독교를 닮은’ 영화라 말하였고, 고신대 강진구 교수는 이런 영화들이 ‘구속적인 영화’에 속한다고 했다. 이창동 감독은 영화 <밀양>에서 기독교의 구원으로 잠시 위로를 얻었던 주인공이, 그 구원의 허무함과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고 신을 떠나 홀로서기를 하게 된다는 결말을 그렸고, 박찬욱 감독은 복수 3부작의 마지막 편 <친절

한 금자씨)에서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복수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김기덕 감독은 신학을 전공했으나 그의 영화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만물이 윤회하는 불교적 세계관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피에타>처럼 예수를 전복적으로 그려 뒤틀린 성경적 세계관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나 <쇼생크 탈출>에서 보이는 전복적인 요소들로 이 영화들이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거나 기독교인이 봐서는 안 되는 영화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보다 넓은 구속적인 영화의 관점에서 영화를 통해 끝없이 갈구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죄, 인간적 한계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주제의식에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유익한 비평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준호 감독의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악함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미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모습 뒤에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구조화된 권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담고 있다. 그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는 15년 전에 개봉된 영화지만, 현재의 청년 실업과 희망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제시하며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기득권층의 모습을 예견이라도 한 듯 보여 준다. 기득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힘없는 소녀와 기득권에 편성하려는 중년의 이야기를 마치 동화인 듯 포장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갔던 농도 짙은 블랙코미디로 흥행은 참패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영화에서 이러한 사회비판적인 주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써 작은 소녀로 대표되는 인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음 영화의 복선처럼 남겨 둔다.

구원의 그림자를 찾아

영화라는 텍스트가 성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모든 메시지는 복음에 저항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메시지다. 진리가 아닌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진리가 아닌 것을 차단하기 급급하다면 그리스도인은 설 땅이 없을 것이다. 영화를 통해 성경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이기도 하다. 어떤 영화는 관객을 현혹하고 계몽하고 혼란스럽게도 한다. 때로는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영화가 다 우리에게 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안 보는 것이 나은 영화도 있고, 보면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영화도 있다. 기독교에 먹칠한 영화만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기에는 영화는 너무나 다양하고 발견하고 누릴 것들이 많다. 구원이 없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중 특별히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에 의해 우리는 구원의 그림자를 발견하기도 한다. 구원의 밝은 빛을 담아내는 대신, 구원이 없는 혹은 구원이 가까운 곳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시선을 배우게 된다. 영화 자체가 가진 메시지를 해석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시선과 생각을 어떻게 읽고 적용하고 더불어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 | 유지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이자 영화제작과 스토리텔링 전문강사로 영상미디어문화 독립저널 <영상이동> 편집인이다.

월드뷰를 읽는 사람들이 읽은 존낙스



낙스 안내자 | 권태경(충신대 역사교육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역사분과장)
함께한 리더(READER) | 이지훈, 이지원, 남기정, 김고운, 조주영

READER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루터, 칼빈이 떠오르는데
요. 그 두 사람과 낙스는 어떻게 달랐나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로 루터나 칼빈보다 조금 더 과격했죠.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적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활동 무대는 자유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였죠. 가톨릭을 비판하며 개혁을 일으킬 때, 국적이 다른 그에게 핍박보다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루터의 경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독일에서 시작되었기에 독일인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독일인들은 로마의 종교인 가톨릭이 왜 독일 교회의 문제에 관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낙스는 당시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어린 여왕을 대신해 섭정하는 왕후가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 왕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프랑스 국교인 가톨릭을 적

극적으로 들여오게 되죠. 낙스는 스코틀랜드 청년으로 왜 이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죠. 그러던 중 자신이 존경하고 추종하던 개신교 지도자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가 종교적 이유로 산 채로 화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지요. 낙스는 개인적인 분노와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스코틀랜드가 정치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낙스는 루터와 칼빈과는 다르게 과격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보다 개혁적이고 현실적이며 과격한 성향을 보였죠.

또한, 루터와 칼빈이 신학자였다면, 낙스는 목회자이고 설교자였죠. 말씀에 근거하여 현실을 살아가는 목회자로 두 신학자들에 비해 현실 인식이 강했어요. 이는 앞서 말한 종교개혁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을 정말 좋아했어요. 실제로 낙스가 임종을 앞두고 힘없이 작은 소리로 말하면 비서가 창문 밖에선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낙스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설교자로서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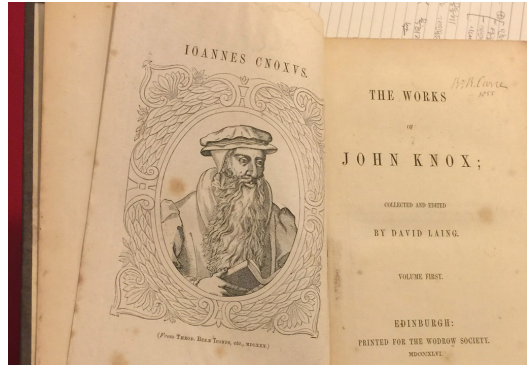
READER 현실에서 치열히 산 종교개혁자가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낙스는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에 대한 대답이 루터나 칼빈과는 달랐어요. 세속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정치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에서 찾죠. 바울도 세속권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복종해야 한다고 했고, 루터와 칼빈도 그랬습니다.

낙스는 칼빈에게 ‘형편없는 지도자가 정치권력을 잡아도 복종해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편지로 묻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라는 말하지 못했죠. 그래서 낙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하죠. 이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개혁입니다. 칼빈과 낙스는 둘 다 종교개혁자이지만, 정치적 입장에서는 일치하지 않았죠. 이런 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칼빈과 낙스의 입장 중 누구를 따를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READER 낙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조금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섭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적, 운명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오늘 하루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나요.’라고 물으면 답하지 못합니다. 낙스는 섭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 속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만한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 강조해요. 섭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섭리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READER 낙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낙스의 장례식에서 그를 설명한 단 한 줄이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노라” 그의 용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에서 나온 용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삶의 처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소명감을 있는데 용기가 없거나, 정의되지 않은 용기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종교개혁 당시, 중심에 있던 낙스, 루터, 칼빈등 개혁자들은 후대의 평가를 생각하며 행동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용기와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의 움직임이 될 겁니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05

하이델베르크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1517년 10월 31일 내걸었던 95개조 논박문은 유럽 곳곳으로 배달되어 나갔다. 때로는 지식호사들이, 때로는 종교지도자들이, 때로는 학자들이 루터의 저술을 목이 타게 기다리고 있던 중 독일 최고(最古) 대학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1386년 설립)에서 루터를 공개청문회를 열어 초청하였다. 그는 이 초청에 순순히 응했다. 1518

년 4월 26일 루터는 청문회에 섰다.

청문회는 찬반 양쪽으로 나뉘었다. 회의는 소란스러웠다. 면죄부 논박문에 반대하는 이들은 루터의 생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젊은 학자와 학생들은 루터의 입장에서 쟁론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청문회에 모인 이들 중 열 명가량의 학자들이 루터의 주장을 옹호하였다. 그들 가운데 마틴 부처(M. Bucer)도 있었다. 그는 이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을 만나는 과정에서 루터의 개혁 사상과 교육에 관해 상당한 지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청문회가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은 여기에 참가한 학자들이 루터 사상을 동서남북으로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하이델베르크는 종교개혁 사상을 전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되었다.

반면 청문회는 루터로 하여금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과 칭의론이 그것이다. 십자가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실 때 고난을 통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할 수 없다. 구원은 고난을 전제로 한다. 고난은 성도의 영적 싸움의 한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환란을 극복할 수 있다.

루터는 또 이렇게 고백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더구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sola gratia)로 가능하다. 구원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청문회는 루터의 사상을 더욱 깊게, 더욱 든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종교개혁은 분명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였던 것이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Recommend

우리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툼 미첼 지음 | 박여진 옮김 | 21세기북스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혼란과 격변의 시기. 암울하고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안을 선사한 마젤란펭귄 이야기입니다. 키가 어른 무릎 높이 만하고 호기심 어린 얼굴을 가진 마젤란펭귄 '후안(Juan)'. 우연한 만남으로 톼의 집 테라스에 동거하며 톼의 삶에 큰 변화를 선사합니다. 또한 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든든한 지원자, 묵묵한 고민상담가가 되어 주는 등 다양한 사건 속에서 특별한 우정을 쌓아 간 사람과 펭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실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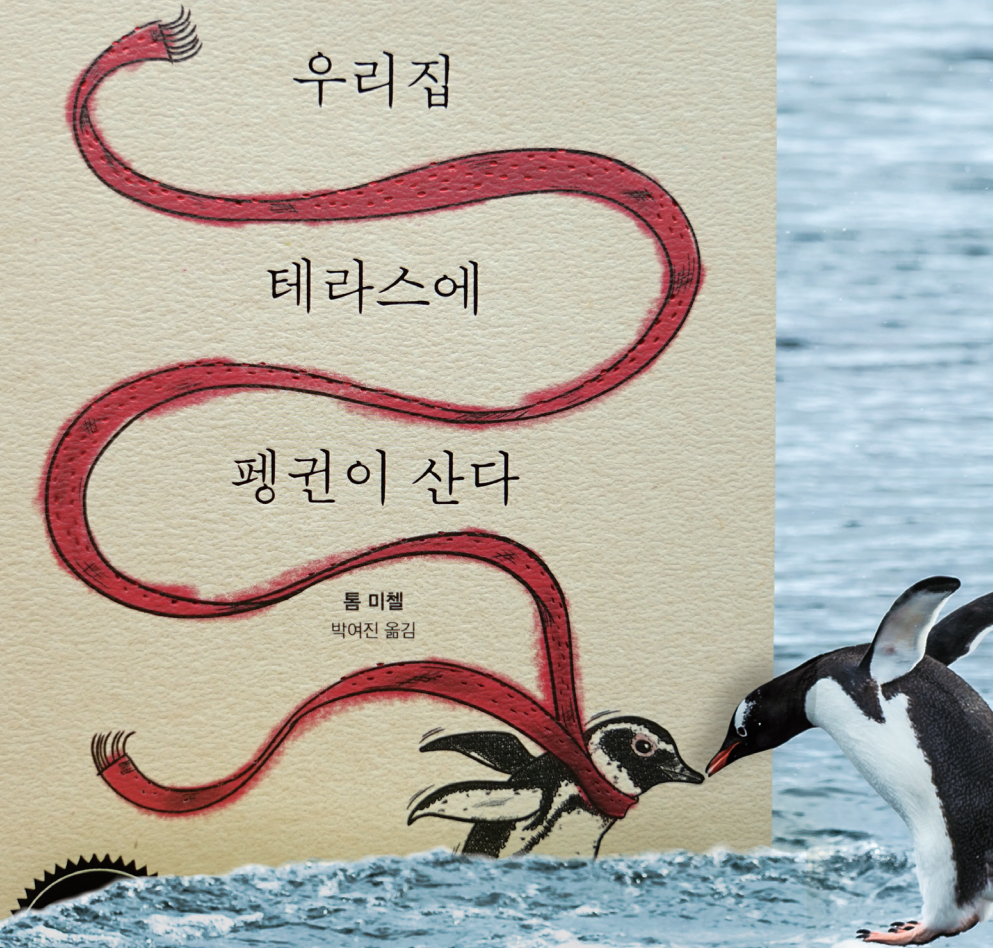
마젤란펭귄과 철부지 교사의 우연한 동거

우리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툼 미첼
박여진 옮김



Thankgive's Think

누군가를 믿기로 '선택'할 때

스물세 살 영국 청년 톰은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테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검은 기름에 뒤덮여 폐사한 수천 마리 펭귄 떼를 만난다. 개중 살아서 머리를 들고 날개를 파닥이는 펭귄 한 마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려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낮설기만 한 그들의 관계가 급진전한 순간은 격렬한 '목욕 전쟁' 때다. 톰은 기름때를 벗기기 위해 욕실에서 펭귄의 몸통과 팔다리, 부리까지 온갖 기구를 사용해 고정한다. 답답함과 두려움, 적대감으로 몸부림치는 펭귄을 보며 톰은 자신의 의도를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지만, 생명을 살리겠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손발을 놀려 최대한 목욕을 서두른다. 그때였다. 갑자기 펭귄에게서 두려움과 적대감이 사라지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제 몸을 그에게 맡기고 협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펭귄은 그를 믿기로 '선택'했다.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걸 이해한 뒤 곧바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펭귄이 인간을 믿게 된 후,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펭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떤 이야기든 와서 꺼내 놓고 큰 위안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다. 골똥히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눈을 바라보는 펭귄 한 마리가 그곳에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요즘 사람들은 손해를 걱정하며 서로를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언제쯤 서로를 믿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 테라스를 찾은 사람들이 펭귄 후안에게 사랑과 우정을 느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눈을 바라보자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불신의 사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대한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몸짓' 하나가 아닐까.

keyword

마젤란펭귄 | 바다 오염 | 우정의 본질 | 인간의 본모습 | 교감 | 이야기 들어주기 | 동료애

Thanks Book

땡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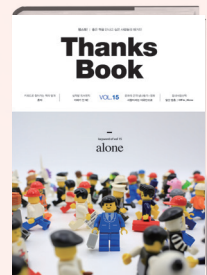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아닙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해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기억의 종말

미로슬라브 볼프 지음 | 홍종락 옮김 | IVP

미로슬라프 볼프의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책 <기억의 종말>을 포함하여 그의 책은 미사여구의 집합체이다. 그의 깊이 있는 생각들이 한 문장으로 엮이는 것을 자주 본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문득문득 탄성을 자아내게 된다. 책을 읽다 갑자기 한 문장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시를 만들고 명구를 만들고 표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 문장들을 다시 읽고, 메모하며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은 두 배가 되기도 하고, 세 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깨달음과 감동 역시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된다. 그런데 그의 책을 몇 장의 서평으로 정리해야 한다니 문제다. 행여 그의 표현들을 옳지 못하고, 내용만을 가지고 논하다가 그의 책을 가난하게 만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기억의 종말>,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악행의 기억'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나의 표현을 빌리면 지당하신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지당하신 이야기'가 볼프의 손에 잡히면 달라진다. 그는 '기억'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든다. 심

리학, 사회학, 문학, 철학의 관문을 지나 신학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깊음 사색이 더해진다. 이렇게 당연한 스토리에 당연한 결말이 깊이와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거기에 그의 미사여구가 더해지면 이 신학적인 책이 흥미진진한 추리소설로 변한다. 과연 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는 궁금증이 책장을 넘기는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 정도이다.

책의 시작은 그의 경험으로 시작한다. 1984년, 아직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군대를 가게 된 이야기이다. 그곳에서 그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의 표현을 빌리면 체제 전복적 학문인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과 독일에서 유학했고, 또 신학을 공부한 미국인 아내가 있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독일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비판적으로 다룬 것이었다. 어쩌면 군대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일 수 있고, 동시에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 전 부대원이 동원되었고, 그는 강도 높게 반역의 심문을 받았다. 이 장기간의 군대 경험은 그에게 비극이었고 악몽이었다. 특히 그를 심문했던 G 대위는 비극의 상징이었다. 책은 이 개인적인 사건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갈 뿐만 아니라 과정과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해야 한다

결말까지 이어간다. 결국 그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 책의 스토리를, 개인사를 끌어들이고 오고 자신의 경험을 간증으로 섞으며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지당하여 객관적이고 교훈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주체적으로 변하여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다.

먼저 볼프는 기억이 정당함을 묻는다. 기억은 객관적일 수 없다. 기억하는 주체가 개입이 된다. 더군다나 그 기억이 악행에 대한 기억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시간이 지나며 해석되어지고, 의미가 더해진다. 그래서 악행은 기억을 통해 더욱 악해진다. 이렇게 악이 이어질 때 또 다른 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피해자가 어느덧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가해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 볼프는 '악이 온전히 이기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악을 되갚을 때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표현한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볼프는 먼저 기억의 도덕성을 이야기한다. 과거에 벌어진 일을 진실되게 기억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거짓기억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는 거짓이지만 본인은 옳다고 믿는 것이다. 거짓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악행을 둘러싼 기억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진실의 충돌로 이어진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면 진실이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실에서 출발해야 할 정의도 함께 실종된다. 그래서 정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에 기반된 바른 기억이 전제된다. 이 과정을 볼프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진실 주장의 문과 진실의 방 사이에는 개연성과 관점이라는 복도가 있고, 때로 그것은 미로와 같다. 그 문으로 들어서서 미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진실로 나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87)

'기억의 도덕성'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SNS 시대에 수많은 기억들이 전시되고 주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들이 이제는 공개되어 검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과거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본다. 한 때의 치기로 흠어졌어야 할 이야기가 공개적인 기억이 될 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악행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탄압'이라고 한다. 피해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선동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은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한 사건에 다양한 진실이 제시되며 모두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경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로의 진실이 부딪히고, 호도되면서 진실은 실종되고, 더불어 정의도 사라지고 만다. 어디 정치뿐이겠는가? SNS를 통해 양산되는 주장들은 진실은 내버리고 거짓에 거

우리는 화해해야 한다.
우리는 저질러진 악행을 밝혀야 하고,
그 본질에 동의해야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좋음을
인정해야 한다.

것을 더하여 탑을 쌓아 버리고 만다. 정점에 이르러서는 종편 뉴스에서 주장이 되고 목소리 큰 누군가에 의해서 진실이 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진실 찾기에 지쳐서 외면하고 다양한 기억이 있었음으로 결론 짓게 된다.

볼프는 이 문제를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주장이 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늘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주장이 진실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특히나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진실하게 기억하는 것을 '도적적 의무'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논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기억의 총합일 수도 있다. 그러한 기억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비경험적인 기억도 우리를 만들어 간다. '기억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137) 이렇게 보았을 때 악행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규정하게 된다. 그 상처만큼 기억은 우리 깊은 곳에 각인된다. 이 악행의 기억이 우리를 규정할 때 우리는 악으로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바른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악행의 기억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며 볼프는 출애굽 이야기를 꺼낸다. 이스라엘이 기억할 부분은 이집트가 행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기억은 고난받는 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 내가 당한 악행을 또 다른 약자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악행에 대한 기억으로 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억으로 나를 만들라고 한다. 이 감격으로 우리에게 나그네된 자들을 합당하게 대하라는 것이 그의 권고이다.

그는 결론 부분에서 '망각'을 권한다. 화해의 과정을 거처서 악행을 망각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망각이 우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에 대해 볼프는 다음과 같이 신학적으로 대답한다.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타인들이 우리 영혼과 몸에 새긴 것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다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자신에게서 "들러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중간).... 우리의 기억, 경험, 소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존재를 규정하기보다는 꾸며 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

이러면, 우리 정체성을 사로잡는 과거의 지배력이 깨졌다는 의미이다.’ (272)

이 책의 중요한 가르침은 결국 화해이다. 그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해자와 화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악행의 기억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나는 “정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원수 사랑”을 지지하는 논증을 펼치지 않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선포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의심을 놓지 못한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교만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밀양>를 떠올린 것은 자연스러웠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범인을 만난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맞닥뜨리니 그게 아닌 것이다. 결국 그녀가 구원받은 것은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던 한 남자를 통해서이다. 남자가 가슴에 들고 있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울던 주인공의 마지막 장면이 이를 보여 준다. 이게 인간이 아닐까? 볼프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에 볼프는 종말론을 끌고 온다. 그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한 형제로서 한 식탁에 둘러앉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해 우리는 이미 화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세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상호 포용’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 악행을 잊으라고 한다. 망각이다. ‘우리는 화해해야 한다. 우리는 저질러진 악행을 밝혀야 하고, 그 본질에 동의해야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좋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완

전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종말론적 이행을 완성하신 후에야 그와 나는 악행의 기억을 망각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수호자요 정의의 종이었던 기억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246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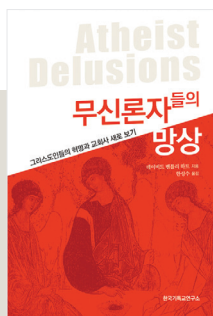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그리고 말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도전이다.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온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는 그렇게 온전할 수 없으니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새겨 왔다. 그런데 종말론을 끌고 오는 볼프의 온전함 앞에 무너졌다. 너무 용서 말고 하나님 안에 네가 거하라, 그리하면 그날에 그를 형제로 만나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그때에 기억은 온전함을 입어 무기억이 되고, 망각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해야 한다.’ (280)



글 |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로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대표이자 기윤실 본부장, 본지 편집위원이다. 저서로는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



무신론자들의 망상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 지음 | 한성수 옮김 | 한국기독교연구원

한국교회는 불과 수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신앙을 매우 철저한 순교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핍박을 감수하며 천국을 소망으로 두겠다는 고백이 믿음의 골자였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급속한 근대화를 겪고 다윈주의의 폭풍 아래 흔들리더니, 이제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목숨을 걸 것이냐는 단선적인 도전 이상을 요구받고 있다.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와 구조 속에서 정직한 답변을 줄 수 있는가? 과거 선배들이 가졌던 결사각오라는 순교의 무게 그대로 이제 기독교 신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교회가 받을 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는 『무신론자들의 망상』(이하 『망상』)에서 두 가지 초점으로 기독교의 역사적 정당성을 호소한다. 먼저 최근 학문과 문화를 통해 가해지는 기독교를 향한 맹공이 객관적 근거 없는 소위 ‘진영 논리’에 따른 공격을 위한 공격일 뿐임을 밝힌다.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다양한 공적인 영역에서 진실된 “혁명”을 통해 기여해 왔음을 주장한다. 본서는 17장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1장~9장을 통해 무신론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비판하고, 두 번째 10장~15장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기여를 소개하며, 세 번째 16장~17장은 기독교가 밀려나고 벌어진 참혹한 현장에 대한 고발과 교회의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현대 신흥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자신의 학문적 예리함을 무기로 역사적-가끔 고고학적-객관성에 호소하여 대응한다. 근대의 신조는 이성의 자율성이다. 저자는 이것을 “개인적 의지에 대한 불가침의 자유”, 즉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부른다(p.49). 이것은 이성으로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일종의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다. 무분별한 비판자들은 기독교를 다양한 영역에서 역사적 퇴보의 주된 원인으로 정죄한다. 『망상』에서 저자 하트 박사는 미학, 철학, 과학, 윤리, 전쟁, 이성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받아온 오해를 낱알이 소개한다. 교회가 철학의 고전들을 사라지게 하고,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며, 불의와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고, 전쟁의 광풍을 일으켰으며, 이성을 파괴해 왔다고 서슴없이 맹공을 퍼부었다. 일부 무신론자들은 심지어 종교적 편향성을 학문에 반영시켜 기독교의 역사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인 ‘일차자료(primary sources)’를 활

용한 객관성 확보 없이 “공허한 전설”, 즉 시장에 떠도는 통념으로 기독교에 공격을 가해 왔다. 저자는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분명히 그는[조나단 커쉬 Jonathan Kirsch] 그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를 매우 좋은 믿음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그것을 사실과 구별하지 못한다.”(p.74) 저자는 그 유명한 갈릴레오의 재판조차도 역사 연구의 렌즈로 정직하게 조망되지 못한 채 그저 “공허한 전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교회에 가혹한 정죄를 가하고 있음을 한 예로 제시한다(pp.117~24).

『망상』의 두 번째 부분에서 하트 박사는 기독교의 전세계적 그리고 인류에적 기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통념적으로 기독교는 교리로는 비논리적이고, 행실로는 불관용적이라고 오해받아 왔다. 게다가 몇몇 학자들은 기독교가 이룬 광범위한 부흥이 “예기치 않은 사회정치적 우발사건” 때문이라며 복음의 호소력을 애써 격하한다(p.252). 그중 램지 맥물렌(Ramsey MacMullen)은 하트 박사가 주요인물로 언급하는 무신론자다. 맥물렌은 성경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바꾼 것이 아니며, 교회도 인류 진보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고 힐난하였다. 이에 하트 박사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맥물렌의 논리 전개방식을 지적한다. 그는 정확하지 않은 2차 자료를 대거 인용하였고, 게다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고전어 번역에 의도적인 편집이 있었음을 지적한다(p.253~54).

또한 교회가 “우연히 발생한 힘들의 결과”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세계사 속 쌓아 온 기여와 업적을 소개한다. 교회는 노예해방, 남녀평등, 정령숭배 배척 등 인류애에 헌신하였고,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진보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철학이 인간성을 고양시키며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트 박사는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쇠퇴한 후 벌어진 참상을 세 번째 부분에서 소개한다. 과학적 실용주의가 세상을 진보시킨 듯 보이나 결과

적으로 20세기는 “허무주의”가 지배했다고 주장한다(p.382). 기독교 철학이 사라진 곳에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실종되었고, 사회적 “우생학 운동”만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한탄한다(p.385).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이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우주적 진리”에 뿌리를 내려 광야 속에서도 진정한 “혁명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며 책을 마친다(p.400).

『망상』은 풍성한 일차 자료 인용과 역사 연구를 기반으로 무신론자들의 부실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본서는 기독교변증학의 성격을 띠지만 철학적 접근이 아닌 역사적 논증의 방식을 택했다. 다만 본서는 저자 자신이 밝히듯 무신론자들의 회심을 의도하지 않는다. 다만 학문의 정직성이 기독교의 정당한 이해에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저자는 서론에서 본서를 학문적 도구들을 최소화하여 기술한 역사적 에세이로 규정한다.(p.7~16) 하지만 적어도 일반 독자에게 저자의 의도는 빗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전문 학술 정보가 담겨 있으며, 철학과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논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각 정보들의 이해의 종합으로서가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따라 대한다면, 본서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을 줄 것이다. 저자가 『망상』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자부심을 거침없이 드러내듯 말이다.



글 | 우상현

삼일교회에서 목사로 충남대학교 수학과(B.S.),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London Theological Seminary(설교자 과정),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에서 수학하였다.



제인 오스틴, 그녀의 일상기도

스테파니 울지 지음 | CR 번역연구소 옮김 | 흥성사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우수한 회사에 들어갈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지, 또 자식은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며 갖게 하신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까지. 우리는 이런 고민을 언제부터 하며 살아왔을까? 이것은 분명 태초부터 이어진 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담이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또 그가 하와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무수한 관계 안에서 고민을 해 왔다. 또 원죄를 지은 후, 인간의 죄성이 점점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먹고사는 것에 많은 근심을 품고 살아왔다. 그것은 역시 제인 오스틴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은 실상이다.

이 책은 흥미롭게도 먼저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발췌하고 그것을 작가가 유추하는 방식으로,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 흐르는 인생 전반의 문제들, 즉 연애와 결혼, 직업, 각자의 역할, 관계, 물질 지향적인 세태 등을

성경과 연결시켜 104편의 목상록을 실었다.

〈오만과 편견〉에 등장하는 제인의 성격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하나인 황금률로 설명할 수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6:31)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신다. 제인은 한 가지 단순한 철학에 의해 이러한 진실을 실천한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주어야 한다.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 없이 용서와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p 40

저자는 〈오만과 편견〉의 제인의 성품과 행실을 빗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이외에도 〈오만과 편견〉에서 나온 다양한 인물, 아버지의 무책임함, 어머니의 물질적 탐욕 등의 모습을 성경의 인물과 대조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과 지양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성과 감성〉의 -제인 오스틴의 많은 작품을 포함

제인 오스틴이 만들어낸 인물의 성격과 행동, 다양한 사건과 성경 속의 그것들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을 상기해볼 수 있다.

하여- 지배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존중'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가치 있고 귀하게 높이며, 높이 평가하고, 진실되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중략) 그렇다면 존중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엘리너는 존중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다. 사랑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 주는 애정이라면, 존중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 평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엘리너는 어머니의 관심을 부추기면서, 자신은 이미 에드워드 의 고상한 인품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개념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절을 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p 45

특별히 제인 오스틴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많은 덕목들을 그의 인물들에 비추어 말했는데, 위의 단락에서 나오는 존중이 그렇고, 그 외에도 겸손과 순종, 가난한 심령, 진실, 거룩한 덕망 등이 그렇다. 또한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직자의 모습을 통해 성직자가 가져야 할 성품부터,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가족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독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책 속의 인물을 쉽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마음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영화, 드라마, 책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배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엠마>, <맨스필드 파크>, <노생거 사원>을 읽으면 그 깊이는 몇 배나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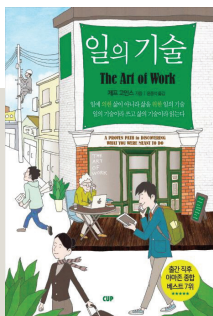
작가가 만든 모든 인물과 배경, 사건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역할이라도 그냥 지어진 것 없이 각기 타당한 목적이 있다. 매우 사소한 사건 역시 그 안에 작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의 상황을 그냥 두는 법 없이 모두 간섭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제인 오스틴이 만들어낸 인물의 성격과 행동, 다양한 사건과 성경 속의 그것들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을 상기 해볼 수 있다. 또한 책의 앞과 뒤에 실린 제인 오스틴의 기도문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 기도는 제인 오스틴 뿐 아니라 그의 소설 속 모든 인물의 기도이자 우리 일상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일 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하루 동안 무엇이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사로잡았는지 생각하게 하소서.



글 | 이효민

중앙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MBN과 극동방송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내 일의 내일, 예술적으로 기술하기

제프 고인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CUP

오늘도 묻는다. 과연 이 일이 내 천직일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질문을 사직서와 함께 가슴에 묻고 산다. 그래서일까? 자기 계발서는 날마다 새롭게 베스트셀러며, 내용의 수준보다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저작권도 상당히 고가다. 사람들은 모두가 내일을 궁급해하고 자기 일을 고민한다.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이 책은 가슴 뛰는 인생을 위한 준비, 실행, 완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소리를 듣고 멘토를 만난 후 고통스러운 준비 기간을 통과하여 삶 가운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일에 대한 기쁨과 성공, 그리고 인생을 조망하는 방법을 일러 준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천직이 삶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한다.

선풍 『일의 기술』이라는 제목에 손이 가질 않았다.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일은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hard worker), 노예근성을 키우며, 중독되게 하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부차적인 산물이나 풍성한 여가를 위한 방편 정도로 생각된다. 그런데 굳이 일에 대한 병법서 『손자병법』을 영어로 하면 'Art of War'라 칭하는 맥락에서 까지 찾아봐야 하나 싶다. '전쟁 같은 일터에서 살아남기'라면 또 모르겠다. 어떤 스펙이 더 필요해서 기술에 대한 책까지 읽어

야 하나 싶을 만큼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박하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필수적이라 할 만큼이 책은 현실적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일에 대한 신앙 서적 중 일명 평신도,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또한 사역자도)뿐 아니라, 일터 진입을 위해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그대에게도 적실하다.

옛말에 '큰 재주는拙해 보인다(大巧若拙)'는 말이 있다. 소명은 어느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 중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다. 재능보다는 숭한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예술과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작가정신과 장인정신이 깃든 작품이 바로 명작이다.

"젊은 성직자는 성가대 간식을 준비하게 되고, 젊은 소위는 잼 단지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허영심 강하고 실속없는 사람들이 걸러지고 겸손하고 강인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전시의 학문〉, 『영광의 무게』, 루이스

작품만 그러할까? 『일의 기술』은 우리에게 소명을 통해 소망을 품는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즐

삶의 의미를 주는 세 가지,
첫째는 뭔가 해야 할 일이고,
둘째는 중요한 관계이고,
셋째는 고난에 대한 구속적 관점이다.
_p.43

해 보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해 준다. 삶 가운데 장인정신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일러 준다.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는 비단 일뿐만 아니라 스쳐간 수많은 시간과 술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것들을 통해 오늘의 나에게서 사소함이 걸러지고 다듬어져서 겸손하고도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단케 하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같은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세밀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중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신의 한수는 우리 삶의 디테일 안에 있다. 비범한 삶이 소명이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소명임을 일깨워 준다. 인생은 매뉴얼이 아니라 한 폭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흔히 우리는 소명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소명은 이미 와 있다. ... 실행해 보면 무엇이든 명료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삶이다. _p.53~54

결국 천직이란 자신이 잘하는 일일뿐 아니라 자기 본연의 일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가 매일 주장하는 세계관의 틀로 일을, 소명을 봐야

한다. 타락한 일을 구속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여 헌신과 인내로서 완성해 나아가야 한다. 결국 천직이란 우리가 시도하거나 해 내는 무엇이 아니라 되어 가는 것이다. “천직을 찾을 때는 끝없는 신비를 찾듯이 하라”(p.56)는 말처럼 천직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모두가 살아가고 존재하지만 실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지 물으며 시작하는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삶이 과정이라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오늘날의 청년들은 평생 직업을 5~6번은 바꿔야 한다. 정년도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사회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게 무엇이든 지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으로 직업을 얻고, 또 공부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는 수많은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 일은 결코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져서, 또는 더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설레지도 않아서 내 소명이 아닌 것 같다 여겨진다면, 당장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결코 소명은 순간의 설렘이 아니다. “행복을 얻는 최악의 길은 행복해지려 애쓰는 것”(p.43)이라는 말처럼 행복을 좇다가 무엇이 행복인지 잊어버린 사람들, 일에 지쳐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 이들, 혹은 지금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 방의 기적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이 책을 읽어 보기를 바란다.



글 | 신효영

건국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총신대에서 기독교 문화를 공부했다. 출판사 편집부, 미디어 강사를 거쳐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이자 <월드뷰>를 만들고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6년 5월 31일 마감기준)

| 수입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지출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
| 경상수입 | 이사회비 | 910,000 | 인건비 | 일반급여 | 5,244,000 |
| | 임원회비 | 640,000 | | 기타급여 | 0 |
| | 일반회비 | 6,238,500 | | 소계 | 5,244,000 |
| | 기관후원금 | 4,850,000 | 경상비 | 사무실임대료 | 550,000 |
| | 월보구독료 | 790,500 | | 사무실관리비 | 458,000 |
| | CTC후원금 | 100,000 | | 통신비 | 388,270 |
| | 학술지원금 | 1,000,000 | | 우편료 | 16,690 |
| | 기타후원금 | 1,300,000 | | 소모품비 | 54,600 |
| | 사무실후원금 | 100,000 | | 식비 | 307,200 |
| | | | | 복리후생비 | 983,610 |
| | | | | 퇴직연금 | 309,250 |
| | | | | 교육비 | 100,000 |
| | | | | 회의비 | 611,800 |
| | | 회계용역비 | | 275,000 | |
| | | 기타 | | 253,438 | |
| | | 소계 | | 4,307,858 | |
| | | 연구지원비 | CTC후원금 | 99,175 | |
| | | | 학술지원금 | 1,000,000 | |
| | | | 10선컨텐츠 | 69,720 | |
| | 소계 | 15,929,000 | 소계 | 1,168,895 | |
| 기타수입 | 기타수입 | 1,080 | 출판(회지) | 월드뷰구입비 | 2,500,000 |
| | 예수금 | 476,580 | | 발송비 | 783,940 |
| | 소계 | 477,660 | | 소계 | 3,283,940 |
| 학회 | 학회이사회비 | 100,000 | 학회 | 학회강사료 | 300,000 |
| | 학회행사수입 | 1,550,000 | | 학회장소사용료 | 0 |
| | 자료집판매 | 10,000 | | 학회자료제작비 | 191,500 |
| | 학회지판매 | 15,000 | | 학회홍보및기타 | 2,838,040 |
| | 학술지심사비 | 590,000 | | 학술지인쇄비 | 0 |
| | 학회기타수입 | 1,000,000 | | 학회기타 | 150,000 |
| | 소계 | 3,265,000 | | 소계 | 3,479,540 |
| 당월 수입액 | | 19,671,660 | 당월 지출액 | | 17,484,233 |
| 전월 이월액 | | 50,720,356 | 차월 이월액 | | 52,907,783 |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6년 5월 31일 마감기준)

| 수입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지출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
| 광고수입 | 월광고비 | 550,000 | 인건비 | 직원급여 | 1,968,000 |
| | | | | 기타급여 | 0 |
| | | | | 소계 | 1,968,000 |
| | | | 제작비 | 교정비 | 160,000 |
| | | | | 편집비 | 300,000 |
| | | 디자인비 | | 990,000 | |
| | | 인쇄비 | | 2,417,800 | |
| | | 기타제작비 | | 70,000 | |
| | 소계 | 550,000 | 소계 | 3,937,800 | |
| 기타수입 | 월드뷰판매비 | 2,500,000 | 경상비 | 복리후생비 | 408,440 |
| | 도서판매비 | 152,250 | | 퇴직연금 | 146,260 |
| | 예수금 | 173,230 | | 회계용역비 | 110,000 |
| | | | | 회의비 | 73,500 |
| | | | | 식비 | 8,100 |
| | | | | 소계 | 746,300 |
| | | | | 기타 | 세금 |
| | | 기타 | 500 | | |
| | | 소계 | 240,130 | | |
| 당월 수입액 | | 3,375,480 | 당월 지출액 | | 6,652,600 |
| 전월 이월액 | | 8,731,449 | 차월 이월액 | | 5,454,329 |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No. (2016년 5월 31일 마감)
Date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봉현, 김셋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원근, 생명의강, 성관수, 손영일, 송민혁, 안용주, 영음사, 옥광진, 유성욱, 윤 정, 윤해경, 이동렬, 장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영래, 조은주,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구재환, 권경미,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미정, 김방민,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영, 김정심, 김재우, 김태영, 김태윤,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균, 박승룡, 박천규, 박현빈, 배도환, 손세용, 송영진,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연,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민수, 이종혁, 이항숙, 이효진, 임소연, 임현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충국,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희희, 최영태, 최희정,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조성진 **7천5백** 강찬진, 고상성, 김나실, 김성욱, 김재우, 방선기, 염기윤, 이경우, 이남철, 이세희, 이신남, 이은순, 이지은, 전영식, 정찬주, 진영규, 최경복 **1만** Lee chun hee suk, 가활현, 강동진, 강민창, 강연정, 강원석,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웅재, 고재호, 곽은이,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훈, 김동찬,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법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래, 김봉수, 김상범, 김상욱,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세령, 김세연, 김세중, 김승호, 김아람, 김아라, 김양희, 김영규, 김영숙, 김영연, 김영호,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민, 김재정, 김재주, 김경모, 김경일, 김정준, 김정진, 김정호, 김정화, 김중국,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민, 김지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호, 김판임, 김혁, 김현정, 김형길, 김형철, 김혜정, 김홍선, 김홍재,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노아름, 라영현, 류은정,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문제환, 문진성, 민신기,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복애,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윤, 박용성, 박원근, 박유관, 박은영, 박은주, 박종국,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지희, 박진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형준,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름, 배인교, 배지연, 배호진, 백경은, 백현준, 변희지,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송중화, 손영규, 손하은, 손하나, 손현타, 송중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자영, 신진성,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형근, 신호기, 신희영, 심명선, 심재훈, 안남주, 안병일, 안 석, 안영혁, 안영환, 안용준, 양성진,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경욱, 오성호, 오지수, 오우혁, 우현기, 유건호, 유경성,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선덕, 유순덕, 유성민, 유영준, 유희선, 유익신, 유지황, 유창은, 유희우, 유희원, 윤경수, 윤명선, 윤미선, 윤상현, 윤숙자,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경준, 이경직, 이계삼, 이관철, 이규현, 이기섭, 이기훈, 이길국, 이길형, 이대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일,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규, 이상무,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 선, 이선복, 이선혜, 이상미, 이상수, 이상일, 이수연, 이승엽,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희, 이요한, 이윤홍, 이원배,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미, 이은혜,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환,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창걸, 이충원, 이혜리, 이행로, 이형진, 이호선, 이현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상필,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준석,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동진, 장성호, 장승기, 장승호, 장승희, 장용훈,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중, 전동일, 전명희, 전성수, 전영수, 전장원, 전중화, 전찬양, 정경식, 정동성,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재현,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희, 조선하, 조성은, 조성호, 조승희, 조우배, 조우현,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주영, 조피터계준, 조하람,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성호, 최세진, 최승호, 최영수, 최영연, 최종빈, 최진우, 최한빈, 최현정, 최혜경, 주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재희, 하진호,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인관,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가영, 허 연,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홍구화, 홍대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종인, 홍준호, 황기철, 황도용,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정 **1만5백** 김경희, 김청수 **1만1천** 장현정 **1만5천** 강승모,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최동원 **1만7천5백** 이승호 **2만** David Han, 강대훈, 강용관, 김성진, 김소라,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배성민, 배세원, 백은석, 석지원, 오지희, 우시정, 유경숙,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인아, 이정규, 이희진, 조창근, 최현식, 한진영 **3만** 김경민, 김남진, 김동원, 김방룡, 김연화, 문석윤,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송태현, 오익석, 오하나, 우병훈, 이수형, 이예진, 이은실, 임희호, 정수영,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임현정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김희원, 김현아(유재민), 박문식, 서진희, 손인석, 윤석찬, 정보영,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진정용,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규, 기정욱, 김영옥, 이근호, 조무성 **7만** 정문선, 최태연 **8만** 권정아 **10만** 박상은, 손봉호, 손영옥, 송인규, 신국원, 신정윤, 양성만, 윤완철, 전광식 **11만** 황혜수 **12만** 강석필, 우수진 **30만** 김승욱 **100만** 권성윤

계 10,079,0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양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양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강남교회, 글로벌한가복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예성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울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연약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130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5,8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Y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입학설명회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양승훈 원장, 전성민 학장)의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세계관을 더 깊이 공부하시고자 하시거나 안식년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일시** 16.7.15(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 **문의** 02-745-7237 (담당 : 홍정석 간사)

모임 | 월드뷰리더(Reader)

함께 모여 <월드뷰>를 읽는 리더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지난 2년간 월드뷰 연재 메디컬칼럼 Cure&Care로 만나고 있는 샘병원 최현일 원장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준비도 없어도 됩니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카카오톡 혹은 문자 등으로 신청하시고 그냥 오세요. 사당역 와우카페, 7월 7 일입니다.

- **일시** 16. 7. 7(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와우카페 (2,4호선 사당역 인근)
- **주제** 몸과 마음과 신앙(Body, Mind, Worldview)
- **토크** 최현일 (월드뷰 연재칼럼 Cure&Care 필진, 여성샘병원 원장)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02-754-8004 (담당 : 김고운 간사)

모임 |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6. 7. 16(토)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54-8004

임원 | 2016년 2차 이사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6년 2차 이사회를 실시합니다. 해당 임원은 꼭 참석하여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일시** 16. 7. 19(화) 오후 4시~만찬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호영 대표간사)

회원 | 동역회 후원의 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6년 2차 이사회를 실시합니다. 해당 임원은 꼭 참석하여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일시** 16. 8. 26(금) 저녁 7시 30분~10시
- **장소** 추후 공지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호영 대표간사)

업데이트 | 2016년 춘계학술대회 기초강연 영상

지난 5월 28일 전주대학교에서 실시한 춘계학술대회의 기초강연 영상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7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월드뷰리더 모임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VIEW] 입학설명회 |
| 16 | 대학원생 모임,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면 공동발행 |
| 17 | |
| 18 |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면 공동발행 |
| 19 | 2016년 2차 이사회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월드뷰 8월호 발행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뜨거운 전화기

양쪽 귀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왔다.

의사: “어떻게 하다가 귀에 화상을 입었어요?”

환자: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다리미를 귀에 갖다 댔지요.”

의사: “저런, 저런! 그런데 다른 쪽 귀는 왜 데었지요?”

환자: “119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어느 귀로 하겠습니까?”

드럼세탁기의 본고장, 유럽의 마음을 사로잡다

어떤 옷은 헝굴 때 넣고

어떤 옷은 탈수할 때 넣고

옷감에 맞춰 추가할 수 있는 애드워시

스타일 좋은 파리 사람들도 반할 만하죠?



모델명 WD21J9940KG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유럽 주요 매거진에서 별 다섯개 만점! ★★★★★

영국 '트러스트리뷰' (Trusted Reviews) 프랑스 '레누메리크' (Les Numeriques)

※ 2016년 3월 / 평가 모델 : WW6500

삼성 애드워시

기독교세계관전공 기독교학 석사
M.A. in Christian Studies

기독교세계관전공 기독교학 디플로마
Diploma in Christian Studies

교육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VIEW는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입니다.

VIEW

한국 기독교의 미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입학 안내 및 문의
www.view.edu
worldview@twu.ca

VIEW는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 ACTS Seminaries의 기독교 세계관 석사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통역 또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VIEW Office, Forsmark Centre, Trinity Western University, 7600 Glover Rd. Langley, BC, Canada, V2Y 1Y1